

**두산중공업(주)**

**8억弗 UAE 후자이라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

**두**산중공업(사장 尹永錫)이 세계 최대 규모의 UAE 후자이라(Fujairah)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두산중공업 운영석 사장은 지난 6월 30일 아부다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UAE 국영회사이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UOG(UAE Offsets Group)의 모하메드 알 마즈로이 사장(Mohammed Al-Mazrouei, CEO)과 8억 달러 상당의 후자이라 담수 및 발전 플랜트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후자이라 담수 프로젝트는 일산 1억 갤런 규모의 담수공장과 660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두산중공업이 민영화 후 첫번째로 도전한 해외 대규모 입찰건이었다.

두산중공업은 별도의 보증 없이 이번 입찰에 참여,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민영화 후에도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신인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03년 7월 완공 예정인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는 UAE 후자이라市 북쪽에 위치한 키드파(Qidfa) 지역에 건설되며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알 아인(Al Ain) 지역과 북부 에미리트지역에 하루 1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담

수를 공급하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의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e)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24개월의 짧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폐열회수 보일러(HRSG)와 증발기(Evaporator)를 창원공장에서 각각 완전 조립상태로 제작해 현지로 출하할 계획이며, GE 가스터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수주로 두산중공업은 '90년대 이후 총 3억 4천만(1일 생산량 기준) 갤런 규모의 담수 플랜트를 수주, 담수설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자체 엔지니어링 기술을 비롯해 담수설비 전공정을 100% 국산화, 해외에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는 세계 우수, 국내 유일의 자체 프로세스 능력 보유업체로서 담수공사 실적 세계 1위인 업체이다.

두산중공업 정태현 상무(담수영업 총괄)는 “지난해 UAE 알따월라(Al Taweelah) 프로젝트 수행시 납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UAE 정부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게 됐다”고 말하고, “이한동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중동 순방길에서 UAE 국가원수에게 두산중공업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큰 도

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해 일산 5천만 갤런 규모의 UAE 알따월라(Al Taweelah) 프로젝트용 증발기를 창원공장에서 완전 조립상태로 제작, 해상으로 수송함으로써 24개월 이상 걸리던 공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 세계 최단 공기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지난 해 UAE 정부로부터 일산 6250만 갤런 규모의 움알나르(Umm Al Nar)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현재 총 15억불 상당의 담수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의 수주가 현재 중동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수 등 여타 프로젝트의 입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주)**

**국가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

**대**덕연구단지내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사장 金德之)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기업 선정증서와패를 받았다. 또한 선정 기업 중에서 「벤치마킹 대상 우수사례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게 되었다.

원자력연료 제조·설계 및 손상연료 수리전문회사인 이 회사는 지난 '97년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금년에 ISO 14001 인증 획득, 국가 공인 교정기관 인정서 취득에 이어 이번에 국가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에 선정됨으로써 국산 원자력연료의 품질 경쟁력 강화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성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은, 산업자원부가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우리 기업의 품질경영체제 확산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서, 경영혁신 및 기술력 향상 등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50대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가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은, 교수, 전문가 등 품질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전략 및 관리 시스템, 경영성과 등 12개 평가부문에 걸쳐 자체평가와 서류심사, 현지심사와 최종심사의 등의 엄격한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50대 기업에 대해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포할 계획이며,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시에도 우선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한전KDN(주)

### 디지털방송 인프라 구축 공동 추진

한 국전력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인 한전KDN(대표 정연동 <http://www.kdn.com>)은 네트워크 기반 가상교육솔루션 전문업체인 (주)메디오피아테크날리지(대표 장일홍 <http://www.mediopia.co.kr>)와 디지털 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멀티미디어 및 네트워크 분야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하여 한전KDN은 대외 영업력 및 기술력 등을 제공하고 메디오피아테크날리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솔루션 확보 및 장비공급, 영업정보 및 설계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

양사는 중계유선에서 종합유선으로 전환 승인된 40여 개의 S/O를 대상으로 방송설비 구축 사업에 대한 영업을 우선 집중하는 한편 향후 S/O의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시 공동으로 영업 및 기술개발을 통한 시스템 통합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 마산광포유선방송 등의 40억원 규모의 디지털방송 인프라 구축사업을 이미 수주하였으며, 추가로 10여개 S/O 수주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진행중이다.

또한, 앞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한 신규 전환 S/O에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리스 형태로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에서 약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전KDN은 산업정보망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산업DB와 응용서비스 시스템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한 소책자 '디지털 산업정보망 서비스' 2,000부를 발간, 정부기관 기업체 협회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고 지난 7월 9일 밝혔다.

산업정보망 구축사업은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한전KDN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70여종의 산업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고객서비스 현장 선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전기안전 서비스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중심의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재출발을 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金永大)는 "고객서비스현장"을 제정, 지난 7월 2일 본사를 비롯한 전국사업소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성실하고 완벽한 전기안전관리활동으로 전기재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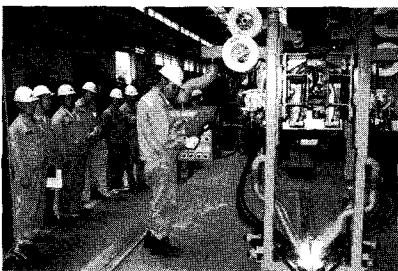
불식시키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전기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진 전기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하겠다는 실천 목표를 두고 있는 “고객서비스헌장”의 선포를 계기로 전기안전공사는 행정분야, 검사·점검분야, 교육·홍보분야, 안전사고 관리분야 등 부분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 모든 국민을 고객으로 존중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토록 하며,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원의 서비스 불친절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잘못이 확인되면 5,000원 상당의 보상도 할 계획이다.

### 현대중공업(주)

#### 다기능 자동 용접시험설비 개발

현대중공업(대표 崔吉善)이 용접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초고속 용접기법 개발용 「다기능 자동 용접시험설비」를 개



발해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학계 및 관련 업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설비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이 시험설비는 1대의 장비로 ‘플렉스 코어드 아크 용접(FCAW)’과 ‘서브 머지드 아크 용접(SAW)’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용접기법 개발의 효율화 및 각종 시험 데이터 관리의 전산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레이저 비전 센서(Laser Vision Sensor)와 최적의 용접변수를 자동설정, 기억, 재생, 전송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용접선 자동 추적은 물론 「용접조건 실시간 적응제어 시스템(Real Time Adaptive Welding Control System)」 및 「용접시험 데이터 자동 처리 시스템(Welding Data Logging System)」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초고속 용접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과 더불어, 첨단 용접자동화 설비의 국산화 개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그 동안 플렉스 코어드 아크 용접은 2전극, 서브 머지드 아크 용접은 3전극 형태로 현장에 적용해왔으나, 이제 새로 개발한 장비를 통해 FCAW의 경우 3전극, SAW는 5전극을 적용,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 용

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최고 용접속도가 [FCAW]의 경우 분당 1.2m에서 2.4m 수준으로 약 2배, 「SAW」는 분당 1m에서 2.5m 수준으로 약 2.5배가 향상되는 것으로,造船 등 생산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련업체 및 학계에서는 이번 「다기능 자동 용접시험 설비 개발」을 두고 고능률 용접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주)케이디파워

#### 친환경·지능형 수배전반 개발

전 력벤치기업인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 www.kdpower.co.kr)는 기존 지능형 수배전반제품을 업그레이드한 ‘환경친화형 지능형 i수배전반 V 4.0’을 개발, 지난 7월부터 본격시판에 나섰다.

이 제품은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색상과 외관구조를 채택하였으며 고객의 이미지에 맞도록 캐릭터를 넣어 철판 에칭(Etching)을 한 환경친화적 제품이다.

특히 기존의 V 3.0 제품보다 컴팩트하게 설계된 이 제품은 MCCB 설치를 개선하고 ACB 인출형을 적용했으며, 상부 인입인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

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개발한 환경친화형 V 4.0 제품은 외관설계와 주요 부품을 환경친화적인 요소로 보강한 신제품”이라고 말하고 “최근 유통시장에서 유사 모방품들과의 차별화를 통한 매출증대 효과와 국내 최초로 지능형제품을 개발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지능형 수배전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개발한 ‘패키지형 지능형 수배전반’은 역률·피크 제어 및 누설전류 감시 등의 최적운전으로 전기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최첨단 전기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기요금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 한전기공(주)

‘2001년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

한 전기공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에서 공동주관하는 ‘2001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에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기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기계, 금속, 전자, 전기 등 11개 제조업 분야에서 총

49개 업체가 우수기업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공기업으로는 한전기공이 유일하게 우수기업 반열에 올라 여타 공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전기공의 이번 쾌거는 공기업으로는 유일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공기업가운데 최초로 1999년과 2000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됐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내노라 하는 민간기업들을 제치고 공기업이 그것도 내리 3년 동안이나 우수기업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우리나라 품질 역사상 보기 드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국가품질상 도전을 위한 2001년 한전기공 품질경영대회가 지난 7월 5일~7월 6일 이틀간 본사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국 사장을 비롯한 임경영간부와 각 사업소 품질분임조 그리고 본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먼저 2001년도 한전기공 품질명장(영월사업소 심화섭 대리) 및 국가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 유공직원(총무처 신성호 과장 등 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고 이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이어졌는데, 전국사업소 22개 분임조 가운데 이날 본선에 오른 12개 분임조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해결 과정을 보이는 등 열띤 주제발표를 통해 한전기공 정비가기술

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결과는 분당사업소 ‘첨단분임조’가 ‘열공급 유입설비 개선으로 열공급률 향상’이라는 주제로 금상을 수상하였고 은상에는 삼천포사업소 ‘등대분임조’, 동상은 월성2사업소 ‘4~20mA 분임조’가 각각 차지했으며 나머지 분임조 9개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들 금상과 은상, 동상 수상팀에는 각각 상금과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오는 9월 3일부터 열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김형국 사장은 대회를 마감하며 품질분임조의 생활화를 통해 창조적 에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현장과 연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술이 곧 품질임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LG산전(주)

소용량 배선용차단기/누전차단기 출시

LG 산전(대표 : 金正萬 www.lgis.co.kr)은 최근 30여 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소용량(30~225AF)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 신제품(브랜드명 : Meta-MEC) 개발을 완료, 7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소형이면서 고차단 용량을 확보한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

## 전기협회 張東洙 상근부회장,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위촉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수립에 참여—

대한전기협회 張東洙 상근부회장이 산업자원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기반조성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심의회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력수급 방향 및 장기전망, 설비계획, 수요관리 등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에서 계획,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그리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종 확정·공고하게 된다.

해 차단용량이 약 90% 향상되었으며, 배전반에 동일한 차단용량의 차단기를 적용할 경우 기존 제품에 비해 약 30%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보조커버의 개폐로 부속장치를 쉽게 부착할 수 있게 하여 사용 편

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디자인도 검은색 위주의 기존 제품 색상에서 탈피하여 밝고 미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외형 크기를 같게 하여 상호 교체

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전반에 신제품을 적용할 경우에도 호환성을 갖고 있어 기존 제품 대체가 가능한 제품이다.

LG산전은 이번 신제품이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네덜란드 KEMA에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인증 시험을 모두 거쳐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의 GB규격(Guojia Biaozhun·중국 국가규격) 및 LR규격, KR규격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LG산전은 소용량에서부터 중용량(400~800AF) 차단기까지 제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

